

설맞이 시민생활안정 10개 분야 대책 추진

복지시설 90곳에 위문금·결식우려아동 급식 이용권 지하철 1회 추가 운행·응급의료기관 25곳 지정 운영

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소외계층 지원, 물가 안정, 체불임금 해소, 차량 소통, 성묘객 편의 증진, 안전 관리, 비상 진료, 환경 정비, 급수, 공직자강 확립 등 10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복지시설 90곳에 10만~30만원의 위문금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 9826명에게는 도시락·급식 카드 가맹점 이용권이 제공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하고, 가격표시 미이행·불공정 거래 지도 등 물가 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장보기, 은누리상품권 사주기 캠페인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는다.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국·시립묘지, 영락공원을 특별수송 구간으로 지정된다.

터미널에서 영락공원 방향 시내버스 518번을 하루 9대, 총 28회 증차 운행하고 지원15번의 경유지에 영락공원을 추가 하며 오전86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연휴 전날인 23일 막차 이후 상·하행선 모두 송정역 출발 열차를 1회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IC)에 국도 우회 안내판을 설치하고, 교통방송과 안내 전광판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영락공원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 임시분향소(44곳)와 임시주차장(7300)을 확보할 계획이다.

참배객과 노약자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고 모범운전자, 경찰, 공무원 등 80여명이 모지 주변 차량 소통을 돕는다.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과 특별 소방조사, 폭설 대비 단계별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5개를 지정 운영한다. 설 당일 보건소는 정상 진료하도록 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설 성수 식품을 점검해 식품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급수종합상황실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출수 불량 예상 지역 15곳을 사전 점검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는 권역별로 지정 운영한다.

연휴 전후에 대청소하고 환경미화원 1777명과 가동처리반 5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와 시 건설행정과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청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대형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 등을 한다.

당직 공무원의 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특별 감찰 활동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종합상황실, 성묘·의료, 환경·정소, 교통, 안전·소방, 급수 등 6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명절에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LPG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안내 등에 대한 정보는 종합상황실과 당직실, 120콜센터에서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고려인·서창마을 연구서 2권 발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018~2019년 고려인 마을과 서창마을을 조사하고 정리한 '광주 고려인 마을 사람들', '광주 서창, 기억의 풍경' 등 연구서 2권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고려인 마을 사람들'은 고려인의 이주사와 귀환 배경, 마을의 공적시설·단체, 상업시설, 의식주, 의례, 신앙, 언어,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는 1860년부터 1945년까지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돌아와 사는 고려인 마을이 있다.

'광주 서창, 기억의 풍경'은 조선 시대 이후 서창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충장로의 역사와 삶, 2014년 ▲구성로-철도가 빛어낸 삶의 풍경 2015년 ▲양동시장의 역사와 삶, 2016년 ▲금남로·중앙로의 역사와 삶, 2017년 ▲남광주, 2018년 ▲경양방죽과 태봉산, 2018년 등 광주 곳곳의 역사를 소개한 연구서를 발간했다.

김오성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관장은 "이번 조사로 고려인 마을에 거주한 동포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려인과 서창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징검다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정보화 업무평가 복구 4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시 복구가 4년 연속 광주시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추진한 정보화 업무 전반기에 대한 성과를 중앙부처 평가지표와 연계해 평가한 것이다. 주요 평가 내용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의 실적이다.

복구는 개인정보 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생활 밀착형 빅데이터 분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도 정보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정보화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복구는 설명했다.

복구정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최상의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극락교~광주송정역 구간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

금남로·상무대로 지하수 이용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극락교~송정역 전국 최장 폭염 대비 5월부터 본격 가동

광주 금남로와 상무대로에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해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구축됐다.

광주시는 동구 금남로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0.52km,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광주송정역 3.5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극락교~광주송정역 구간은 클린로드 설치 단일구간으로 전국 최장 구간이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노즐로 지하수를 뿌려 도로를 세척하는 것이다. 시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해당 구간 시작점에 가동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비도 배치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부터 운영한다.

도로에 뿌려진 지하수는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세척해 대기 질도 개선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앞서문화전당~금남로공원에 이르는 350m에 상수도용 이용에 미세 물 입자를 분사하는 콜링포그 시스템도 설치했다. 가로등 형태의 LED 조명도 함께 설치돼 불거리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4~31일 설 연휴 환경오염 감시체계 운영

오염우려지역 점검 등 관리강화 오염행위 환경신문고 신고 접수

광주시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관리 여건이 취약한 설 연휴를 이용해 폐수 무단 배출과 겨울철 한파에 따른 방지시설 부작동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처리시설과 환경오염 우려 지역 등은 시와 자치구 간부공무원이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우선 설 연휴기간 이전(1단계, 14~23일)에는 관내 8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율점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7개소 14명(광주시 2명, 자치구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12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과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설 연휴(2단계, 24~27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3단계, 28~31일)에는 특별감시 기간 적발된 업체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파괴를 위협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이행 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환경오염 신고 상담전화(유선전화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상습 결빙 구간·제설 장비 등 제설 실태 점검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종합건설본부·자치구와 겨울철 도로 제설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설 대책의 적정성, 취약구간 제설 대책, 제설 장비 관리 등을 점검했다.

특히 상습 결빙(블랙 아이스) 지정 구간을 기존에 38곳에서 54곳으로 늘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결빙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발생 가

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 작업을 할 계획이다.

도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 자동연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고 제설함을 추가 배치했다.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협력, 운전자에게 실시간 주의와 경고를 할 수 있는 음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상습 결빙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 142개, 현수막 46개, 전광판 16곳을 설치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켜줍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